

칼빈의 영성 이해: 기독교강요와 그의 신약 주석을
중심으로

Direction and Strategy for Evangelization of
Next Generation

송 영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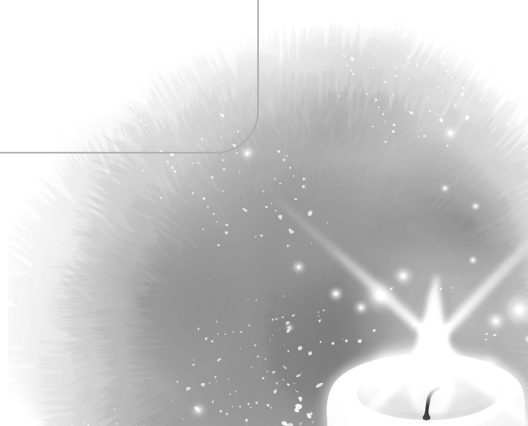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들어가면서 | 291

1.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경건) 이해 | 293
2. 칼빈의 신약 주석에 나타난 영성(경건) 이해 | 297
3. 칼빈이 이해한 영성의 특징들 | 310
4. 칼빈의 영성 이해를 현대 교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 316

나오면서 | 317



요약

칼빈의 영성 이해: 기독교강요와 그의 신약 주석을 중심으로

이 글의 목적 칼빈이 영성(경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고, ‘경건’(εὐσεβεία θρησκεία εὐλάβειά δικαιοσύνη δεισιδαιμονία)과 관련된 구절을 다루는 칼빈의 신약 주석을 살펴보고, 경건의 특징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 교회에 주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정의하며,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배와 기도로 경건을 유지하며, 세상에 탐닉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 경건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야 할 습관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비밀의 결과이다.

*Calvin's Understanding of
Spirituality from the Institutes
and his New Testament
Commentaries*

주요어

칼빈, 영성, 경건, 기독교강요, 신약주석

* 송영목 교수는 고신대학교와 동 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남아공 포츨스트룸대학교(Th.M)에서 B.J. De Klerk 교수의 지도로 누가복음을 연구했다. 이후 요하네스버그대학교에서 J.A. Du Rand 교수의 지도로 요한계시록을 전공했다(Ph.D).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신대학교 신학과 전임으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신약주석』, 『신약과 구약의 대화』, 『요한계시록의 신학』, 『신약신학』, 『헬라이어강독의 원리와 실제』, 『삶과 삶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등이 있다.

Abstract

Calvin's Understanding of Spirituality from the Institutes and his New Testament Commentaries

Prof. Dr. Young-Mog So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be Calvin's understanding of spirituality(or piety). In order to fulfill this aim, the following steps are investigated: (1) Study on the concept of piety in the Institutes, (2) the investigation of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dealing with the concept of piety(εὐσεβεία θρησκεία εὐλάβεια δικαιοσύνη δεισιδαιμονία), (3) the summary of the characteristics of piety in the Institutes and his New Testament commentaries, (4) the applicable lesson of Calvin's understanding piety to the Korean Church. According to Calvin, the true spirituality is the fear of God, the understanding the truth, the maintaining piety by worship and prayer, and the serving the world but not indulging into it. This piety is the will of God toward the faithful as well as the natural habit of the Christians. The piety is resulted in the mysterious union of Christ and the Christians through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Keywords | Calvin, Spirituality, Piety, Institutes, New Testament Commentaries

들어가면서

이전에는 종교적인 의미에 국한 된 ‘영성’이, 현재는 모든 종류의 사람, 상황 그리고 의미와 관련된 ‘그물 단어’(net word)가 된 듯하다. 따라서 ‘영성’이라는 그물을 내리면 ‘153마리의 잡어’가 잡히는 실정이다. 영성의 일반 사전적 정의를 간단히 내리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다.¹⁾ 반면, 영성의 기독교적인 정의를 간단히 내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인데, 영적인 면 뿐 아니라 삶 전체와 관련 된다.²⁾ 지금도 ‘기독교 영성’은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영성이란 그리스도인이 자기 속에 그리고 주변에 계신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방식이다.”³⁾ 그리스도 중심적 정의로는, “영성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1) 참고.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1989), 1555.

2) ‘영성’의 명사형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라틴어 ‘*spiritualitas*’는 AD 5세기 편지(제롬이 쓴 것으로 잘못 인식됨)에서 발견되는데, 바울이 사용한 *πνευματικός*와 의미가 유사하다(롬 7:14; 고전 10:3; 엡 1:3; 골 3:16 등). *πνευματικός*에서 *πνευμα*는 인간 존재의 내적 생명으로서의 영(spirit)이라는 의미는 신약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악령’(evil spirits)을 가리키는 엡 6:12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성령님(the Spirit)과 관련 된다. 보라. C.J.H. Hingley, “Spirituality,” in *New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and Pastoral Theology* (ed.), D.J. Atkinson and D.H. Field (Leicester: IVP, 1995), 807-9. 그리고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hird Edition (BDA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837. 그런데 중세의 전통적인 단어였던 ‘*spiritualitas*’는 칼빈의 언어에는 이질적이었다. *Institutes*, 3.19.16에서 형용사 *spiritualis*를 사용하지만, 주로 명사형 *pietas*를 쓴다. 참고. J. Calvin,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trans. E.A. McKee (New York: Paulist Press, 2001), 4-5.

3) H.L. Rice, *Reformed Spirituali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황성철 옮김, 『개혁주의 영성』(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58.

것이다.”⁴⁾ “영성이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험과 그 신앙이 종교적 양심과 실천 가운데서 일으키는 반응과 가시적인 열매이다.”⁵⁾ 그러므로 개인의 영성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그 사람의 삶에 주는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세 시대의 영성은 일반 성도와는 구별되는 수도사나 수녀의 삶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영성이 일반 성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적인 신중함과 관련되는데, 청교도(장로교)에서는 ‘경건’(godliness), 감리교에서는 ‘완전함’(perfection), 루터교에서는 ‘경건주의’(pietism)로 표현되었다.⁶⁾ ‘칼빈’과 ‘성화’ 혹은 ‘소명’은 한꺼번에 자주 등장하지만, ‘칼빈’과

4) G.S. Wakefield, "Calvinist Spirituality," in *A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 G.S. Wakefield (London: SCM), 1983. 엄성욱 역. 『기독교 영성사전』(서울: 은성출판사, 2002), 589-64.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물질적 생활에 반대되고, 이로 부터 떨어져 있는 한 영역을 암시한다고 이원론적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Rice는 개혁주의에서 영성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이유를 분석했다: (1) 부유하고, 바쁘며, 지성과 통계를 중시하는 (중산) 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대체로 영성에 부정적이거나 저항적인 태도를 가진다. (2) 개혁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어떤 거짓된 구원의 모습이 듣지 피하려 했다. (3) 신앙공동체를 강조하다보니 개인적인 형태의 경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4) 자칫 방종적인 자기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감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5) 삶 전체와 관련되는 건강한 신앙을 강조하다보니, ‘내세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 Rice는 (2)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3)과 관련하여 공동체의 헌신과 개인의 헌신의 조화, (4)와 관련하여,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타인을 섬기며 살려는 자세와 감정과 사고의 조화, (5)와 관련하여 현 세상에 대한 즐거운 수용과 소유를 이상화하지 않는 청지기 정신과 검소함 및 내세를 향한 소망의 균형을 제시한다. 하지만 특별히 (5)는 개혁주의자가 영성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성은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예를 들어, 마음을 강조하는 명상적인 형태, 행동 지향적 영성, 수동적이며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형태를 들 수 있다. 보라. Rice, *Reformed Spirituality*, 61-68, 86-87.

5) Calvin,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2.

6) E.H. Peterson, "Spirituality/Spiritual Formation," in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 K.J. Vanhoozer (Grand Rapids: Baker, 2005), 766-69.

‘영성’이 한 문장에 나란히 등장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한 가지 증거를 그 사람의 확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영적인 인도자로서의 칼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역동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⁷⁾ 개혁주의 진영에서 ‘영성’(spirituality)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경건’(piety)이다.⁸⁾ 그리스도인과 성화 그리고 경건은 상호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다. 이 글에서 칼빈이 영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먼저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고, ‘경건’(εὐσεβεία θρησκεία εὐλάβειά δικαιοσύνη δεισιδαιμονία)과 관련된 구절을 다루는 칼빈의 신약 주석을 살펴보고, 특징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 교회에 주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1.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경건) 이해

칼빈이 『기독교 강요』전체 80장 중 한 장도 경건에 대해 할애하지 않지만, 그 책 전체를 경건에 할애했다고 볼 수 있다.⁹⁾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pietas)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7) Calvin,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3.

8) Rice, *Reformed Spirituality*, 58. 참고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경건’은 신들에 대한 숭배와 복종, 독실한 생활, 헌신적 생활, 종교적 생활, 상전에게 빚진 의무에 대한 충성 등을 의미했다. 경건이 지닌 함축적 의미들의 폭넓은 영역들 즉 하나님 편에서의 동정,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기독교 초기로부터 나타났다(참고. 딤펀전 6:3; 벵후 1:7). 보라. Lucien J.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Knox Press, 1974). 한국 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영성』(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121-2.

9) 이수영. “칼빈의 경건,” in 『칼빈, 그 이후 500년』(ed.) 한국칼빈학회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0.

“... 사실상 종교나 경건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발생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존경이 결합된 것을 ‘경건’이라고 본다. ... 하나님 안에 완전한 행복을 두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진실하고 ‘경건’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¹⁰⁾

즉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리스도인의 존경이 결합된 경건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으로 표출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칼빈이 경건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총들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더 높은 견지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주시는 띠이시다.”¹¹⁾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데,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포괄적인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은혜와 함께 자신을 그들에게(성도) 나눠 주셔서 그의 것은 모두 그대의 것이 되고, 그대는 그의 지체가 되며, 실로 그와 하나가 되고, 그의 의는 그대의 죄를 가리우며, 그의 구원은

10) J. Calv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1.2.1-2. 칼빈은 ‘경건’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개신교를 박해했던 ‘프랑스 왕 프랑시스 1세(1494-1547)에게 드리는 헌사’(1536년 8월 1일. 바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의 의도는 다만 종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제공하자는 것 뿐이었습니다”(이택릭은 필자의 것).

11) Calvin, *Institutes*, 3.1.1.

그대가 받을 정죄를 도말하신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거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를 결합시키신 그 친교를 용감하게 양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끊을 수 없는 교제의 유대로 우리와 결합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영적 교제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마침내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신다.”¹²⁾

칼빈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기까지 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은사와 은총을 성도가 공유하는 것은 성도의 ‘실천’과 관련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전체 생활은 일종의 경건의 실천이어야 한다(엡 1:4; 살전 4:3, 7).”¹³⁾

칼빈은 경건의 실천을 위한 핵심 사항 중 하나인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불경건이란 ...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두려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 경건은 우리가 세상의 불법에서 분리될 때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켜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든다. ...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과 결합되어 이 두려움이 자발적인 경외를 일으키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의 합법적인 예배를 하게 한다.”¹⁴⁾

12) Calvin, *Institutes*, 3.2.24.

13) Calvin, *Institutes*, 3.19.2.

14) Calvin, *Institutes*, 1.2.2. 그리고 3.7.3. 칼빈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Peterson은 그리스도

자기를 부정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이다:

“경건의 법칙은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운명을 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부주의한 힘으로 밀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연하고 공정하게 우리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분배한다고 본다.”¹⁵⁾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¹⁶⁾ 다시 말해, 칼빈은 말씀, 기도, 예배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일과 소유에 탐닉하지 않고 세상과 일정 거리를 두는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본다.¹⁷⁾

칼빈의 아래의 설명으로 경건의 요점을 정리해 보자:

인이 영성과 관련된 모호함을 ‘영적인 형성’(spiritual formation)을 말함으로써 제거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영적인 형성’이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즉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성’을 가리킨다. 이 영적인 형성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영적인 형성은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가능하며, 그 경외를 촉진하는 방법은 ‘기도, 예배, 순종’이다. 참고. Peterson, “Spirituality/Spiritual formation,” 768-69.

15) Calvin, *Institutes*, 3.7.10.

16) Calvin, *Institutes*, 3.10.3; 4.17.39. 그리고 칼빈의 딤후 1:1 주석을 참고하라.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II Corinthians,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T.A. Smail (Grand Rapids: Eerdmans, 1964), 353.

17) 칼빈의 벰후 3:11 주석과 딤후 2:19 설교를 참고하라.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Hebrews and I and II Peter*, trans. W.B. Johnston (Grand Rapids: Eerdmans, 1963), 334. J. Calvin, *The Mystery of Godliness and Other Selected Sermons* (Grand Rapids: Eerdmans, 1950). 김동현 옮김, 『존 칼빈 목회서신 강해: 명설교 14편』(서울: 지평서원, 1996), 115.

“참된 경건의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주님으로서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죽는 것보다 그를 거스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순수하며 참된 열심을 내는 것이다.”¹⁸⁾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 경건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연합된 예수님의 온전함에 까지 자라가는 평생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칼빈은 삼위일체적, 예전과 윤리적 실천의 균형, 내면과 실천의 조화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갖춘 일종의 ‘통전적 영성’을 가르치고 있다.¹⁹⁾

2. 칼빈의 신약 주석에 나타난 영성(경건) 이해

2.1. εὐσβεβεία의 용례

Louw & Nida에 의하면, εὐσβεβεία는 ‘올바른 종교적 신념과 태도를 반영하는

18) Calvin, *Institutes*, 1.2.1. 그리고 칼빈의 행 25:19 주석을 참고하라.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I*, trans. W.J.G. McDonald (Grand Rapids: Eerdmans, 1966), 265-66. 그런데 칼빈은 ‘그리스도인’과 ‘경건한 자’를 동의어로, ‘이단’(혹은 ‘악인들’)을 ‘불경건한 자’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예. *Institutes*, 1.16.8; 1.17.3; 1.18.1.

19) 참고. Calvin,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5, 334. 칼빈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는 외모보다는 결혼 대상자(여자)의 ‘심성(heart)과 영성(spirituality)’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구혼(courtship) 기간 동안 세시한 옷차림, 화장,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 외설적인 시와 노래, 술집 출입, 파음, 파식, 같이 수영하거나 목욕하는 것 및 성교를 금했다. 참고. H.J. Selderhuis, *John Calvin: A Pilgrim's Life* (Downers Grove: IVP Academics, 2009), 181.

행실'(behavior reflecting correct religious beliefs and attitudes)이라는 의미로, 'piety' 혹은 'godliness'로 번역할 수 있다.²⁰⁾ εὐσεβεία는 '하나님 경외'(awesome respect accorded to God)를 기본적인 의미로 가지는데, NIV는 'godliness'(행 3:12; 딤후 2:2; 3:16; 4:7; 6:3, 5, 11; 딤후 3:5; 딤후 1:1; 벧후 1:3, 6; 3:11)로 일관성 있게 번역 한다. 하지만 Bauer는 'piety', 'reverence', 'loyalty', 'devoutness'도 εὐσεβεία의 가능한 번역으로 제시한다.²¹⁾ 특히 베드로후서 1:4-7에 의하면 εὐσεβεία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이며,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과 연결된 '성도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다(참고 벧후 3:11). 이제 칼빈의 신약 주석에서 euvsebeia(piety, reverence, loyalty)의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자.

2.1.1.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의 장애인을 고친 기적을 언급하는 사도행전 3:12의 주석에서, 칼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사람의 신앙심(‘경건’, 바른 성경 역)이나 미덕에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오를 범하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칼빈은 이 구절을 적용하면서 그 당시 교황주의자들이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성인들에게 돌린 것을 성상숭배와 더불어 비판한다.²²⁾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칼빈이 경건과 같은 신학적 개념을 이해할 때도,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종교적 관행을 비판하는 적용점을 가진다는 점이다.

20) J.P. Louw and E.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ume 1*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93), 532.

21) Bauer, *BDAG*, 412.

22)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trans. W.J.G. McDonald (Grand Rapids: Eerdmans, 1965), 96.

2.1.2. 목회서신

2.1.2.1. 디모데전서 2:2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디모데전서 2:2의 주석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법률에 순종함으로써 ‘경건을 보존’하는 혜택을 얻는다고 설명한다.²³⁾ 이것은 위정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장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유지하며,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서 칼빈은 경건을 ‘신앙을 장려함’, ‘예배를 유지함’, ‘거룩함을 존경함’으로 설명한다.

2.1.2.2. 디모데전서 3:16

‘경건의 위대한 비밀’을 언급하는 디모데전서 3:16의 주석에서 칼빈은 경건이신 예수님을 상세히 주석한다. 칼빈은 예수님을 비밀로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⁴⁾ “성육하신 예수님이 위대한 비밀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참고. 엡 3:18-19; 엡 4:15). ‘영(‘성령’, 바른 성경)으로 의롭다 함’(즉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심)을 입으신 경건이신 예수님이

23) Calvin, *II Corinthians, Timothy, Titus and Philemon*, 206-07.

24) Calvin, *II Corinthians, Timothy, Titus and Philemon*, 232-33. 사실 ‘그 경건의 그 비밀’(τὸ τῆς εὐσεβείας μυστήριον)에서 ‘그 경건의’(τῆς εὐσεβείας)라는 속격을 동격으로 보면서 ‘그 경건 즉 그 비밀’로 번역할 수 있다. 즉 ‘바로 그 경건이신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라는 뜻이다. 바울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후사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τῷ μυστηρίῳ τοῦ Χριστοῦ)을 언급했다(엡 3:4-6). 딤후전 4:8도 경건이(지금과 오는 시대의)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딤후전 3:16, 4:8 그리고 엡 3:4의 간본문성은 경건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특징을 가진 우주적 구원의 관점으로 보도록 한다. 참고. 황창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서울: 이레서원, 2000), 70.

비밀스러운 이유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난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육신의 연약성이 결코 그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칼빈은 ‘영’을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하고 인간을 초월하는 모든 내용(예. 영적인 영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경건이신 예수님이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신 것’이 비밀스러운 이유는, 비록 천사들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믿은바 되심으로써 만국의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경건이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것이 비밀인 것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을 것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3:16은 경건을 우주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제외된 채 성도가 지니는 영혼의 상태나 덕목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승천까지의 ‘구속사역의 오묘함’이다. 따라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영성 이해는 혼합주의요 신비주의가 되기 십상이다.²⁵⁾

2.1.2.3. 디모데전서 4:7

디모데전서 4:7(“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 하여라”); 바른 성경) 주석에서 칼빈은 바울이 에베소교회의 목회자 디모데가 어떤 종류의 본을 성도에게 보여야 마땅한지 경건과 연결하여 설명한다고 본다. 여기서 ‘경건’이란 순결한 양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예배를 뜻하는데, 이 점은 경건이 육체적 단련(사냥, 달리기, 레슬링 등이 아니라, 철야기도

25) 참고. Calvin, 『존 칼빈 목회서신 강해: 명실교 14편』, 91. 그리고 황창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 68.

등으로 오래 땅에 엎드려 금식기도하기와 같은 외형적인 신앙행위 등)과 대조되는 다음 구절(딤펴전 4:8)에서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다”를 “내가 쓸데없이 다른 문제로 시달릴 필요는 전혀 없다. 네 모든 정성과 능력을 다 기울여 오직 경건함에 힘쓰는 것만으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셈이니까”라는 내용으로 본다. 7절의 경고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은 언제나 외형적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그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 당시의 수도원적 금욕생활과 육체를 죽이려는 목사들의 엄격한 습관의 혜택은 극소하며 유치한 규율의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²⁶⁾ 칼빈은 경건의 외형보다는 순결한 양심에 근거한 영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²⁷⁾

2.1.2.4. 디모데전서 6:5-6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5절)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모든 내용이 가져주는 이득의 관점에서 측정하여, 경건이 이익이나 이익을 삼는 방법과 동등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성령의 말씀이 오직 그들의 탐심을 채우는 뜻에서 허용되었을 뿐 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사실 그 말씀이 장사하는 상품인 양 그것을 사업으로 일삼고 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6절). ‘자족하는 마음’은 시편 34:10에서 가르치는 대로, 주님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충만함에

26) Calvin, *II Corinthians, Timothy, Titus and Philemon*, 243.

27) 딤펴전 5:4에는 경건의 동사형(εὐσεβείῃ)이 나타난다. 바울은 과부가 된 모친이나 조모를 성실하게 돌보는 것(filial piety 혹은 human piety)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의무의 일부이다. “가정에서 식구들에 대한 경건한 여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예배를 위한 단련을 쌓는 훌륭한 준비과정일 것이다. ... 인간으로서 효성을 일구어감으로써 하나님 예배에 대한 훈련을 쌓아야 한다.” Calvin, *II Corinthians, Timothy, Titus and Philemon*, 251-52. 참고. J.I. Packer, “경건,” in 『새 성경 사전』(ed.), J.D. Douglas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95.

기초 한다. 이러한 진정한 복된 상태는 경건으로 이루어진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는 자신의 경건이 마치 상품이라도 되는 양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품화함으로써 사악하고 그릇되게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바울처럼 경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경건이 위대하고 더없이 풍성한 이익이라는 점은 사실이다”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바울이 경건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복된 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거나, 경건을 자신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경건 그 자체가 충분히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부요를 누릴 권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를 누리도록 한다.²⁸⁾

2.1.2.5. 디모데전서 6:11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야 한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돈에 대한 탐욕(딤후 6:10)을 교정하기 위한 바울의 처방이다. 디모데가 마땅히 따라야 할 욕망은 영적인 것이다. 경건을 따르는 사람은 탐심과 그것의 열매를 혐오하고 기피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시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의 것에만 탐닉하고 그 결과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²⁹⁾

28) Calvin, *II Corinthians, Timothy, Titus and Philemon*, 273-74.

29) Calvin, *II Corinthians, Timothy, Titus and Philemon*, 276. 그리고 칼빈의 시 128:3 주석을 인용하는 R.C. Gamble, “Calvin and Sixteenth-Century Spirituality: Comparison with the Anabaptists,” *Calvin Theological Journal* 31 (1996), 342.

2.1.2.6. 디모데후서 3:5

‘말세’(딤후 3:1)는 기독교회의 보편적인 상태를 포함 한다. 즉 바울은 장차 그리스도 나라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바울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대조하는데, 칼빈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자의 모습을 그 당시의 경건의 탈을 쓴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의 위선과 거만함 그리고 불결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바울이 비난하는 ‘경건의 모양은 ‘위장된 성결’이다.³⁰⁾

2.1.2.7. 디도서 1:1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곧(καὶ)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믿음’을 ‘진리의 지식’이라고 부름으로써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밝힌다. 그리고 믿음은 개연성으로 만족하지 않고 참된 것(즉 헛된 인간적인 지식과 반대가 되는 진리)만 고수한다. 진리는 우리를 온갖 오류와 거짓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올바른 지식이다. 이것을 칼빈은 그 당시 카톨릭의 확실한 이해가 결여된 지식과 대조한다.³¹⁾ ‘경건에 속한’은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진리’에 대한 수석어일 뿐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의 효과와 목적’을 동시에 추천하는 말이기도 하다. 바울의 가르침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를 굳건히 하고, 인간 사회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건덕’을 세우지 못하는 질문은 경건한 자들이 배척해야 한다. 그리고 ‘교의의 적합성’은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경건에 가장 앞선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 ‘경건한 신학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 경외’ 위에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30) Calvin, *II Corinthians, Timothy, Titus and Philemon*, 323.

31) Calvin, *II Corinthians, Timothy, Titus and Philemon*, 353.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순수한 믿음의 본질이요, 건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건은 지적인 면과 신앙생활의 전체와 관련된 실천적인 면이 균형을 이루고 포괄적이다.

2.1.3. 베드로 서신

2.1.3.1. 베드로후서 1:3

베드로가 그의 수신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경건이 더 뛰어난 은사인 ‘생명’(즉 영생)에 뒤따르는 ‘현재의 생명이나 삶’을 뜻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경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자연의 일반적인 상태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베푸신 은사이다.³²⁾ 인간생활의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근원을 두는 새로운 영적 생활의 특수한 은사이다. 따라서 사람은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연하다는 듯이 권리로써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구해야 한다.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의 은사로 보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게 한다. 즉 경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이다.

2.1.3.2. 베드로후서 1:6-7

베드로가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벰후 1:4)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성질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영생을 누리는 성도 안에 회복되어 완전한 복락에 필요한 수준에 까지 이르러야 함을 교훈 한다.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32) Calvin, *Hebrews and I and II Peter*, 328-29.

할 ‘자질’인 경건을 ‘은사’로 부여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음을 인정받게 된다.³³⁾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성질)인 동시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성도는 경건이라는 은사를 잘 활용하여 그 안에서 자라나 넘치도록 해야 한다.

2.1.3.3. 베드로후서 3:11

도둑같이 오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εὐσεβείαις 여성 복수 여격)으로 살아야 한다(벧전 3:10-11). 베드로의 논지는 하늘과 땅이 불로써 정결하게 되어 새 생명의 세계인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에 합당하게 되듯이, 성도에게도 그와 같은 정화의 단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건들’이 ‘경건의 의무들’이라는 복수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경건’이라는 단수의 의미로 보는 게 낫다.³⁴⁾ 성도가 소멸될 이 땅의 일에만 전념하는 것은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거스리는 것이다.³⁵⁾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벧전 3:14)은 성도가 죽을 때 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³⁶⁾ ‘경건’도 마찬가지이다. 칼빈은 경건을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종말의 틀로 이해한다.

33) Calvin, *Hebrews and I and II Peter*, 332.

34) 하지만 이 복수형은 경건과 관련된 특정한 ‘여러 행위들’을 가리킬 수 있다. 참고. Packer, “경건,” 95-96.

35) Calvin, *Hebrews and I and II Peter*, 334. 참고로 Gamble은 칼빈과 그 당시 재세례파는 영성에 있어서 2가지 확실한 유사점을 공유한다고 본다: (1) 개인적인 거룩을 추구함 (이를 위해 ‘치리’가 필요함), (2)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관련 있는 고난을 감내하는 생활. 이 둘의 차이점으로는 재세례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국가 교회’(state church)를 거부했지만, 칼빈은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정화시켜야 한다고 본 점이다. 참고. Calvin, *Hebrews and I and II Peter*. 칼빈, 『존 칼빈 목회서신 강해: 명설교 14편』, 155. 그리고 Gamble, “Calvin and Sixteenth-Century Spirituality,” 335-58.

36) Calvin, *Hebrews and I and II Peter*. 287.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여기서는 ‘죽음’을 특별히 염두에 둠)이든 그것을 더 큰 위안으로 극복하고 억누를 수 있는 ‘경건의 광명’이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참고. Calvin, *Institutes*, 3.9.5.

2.2. θρησκεία의 용례

Louw & Nida는 그들이 집필한 *Greek-English Lexicon*에서 신약의 'piety'와 관련된 첫 번째 명사로 θρησκεία를 언급하면서, 'appropriate beliefs and devout practice of obligations relating to supernatural persons and powers'로 정의한다.³⁷⁾

Bauer에 의하면, θρησκεία는 초월적 존재를 향한 헌신의 표시인데, 특히 예배 의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단어는 신약에 약 4회 등장하는데 '예배'(worship) 혹은 '종교'(religion)로도 번역 된다(참고. NIV 행 26:5의 'our religion'; 골 2:18의 'the worship of the angels'). 그러나 야고보서 1:26-27(NIV: 'religion')에서 야고보는 말을 조심하는 것과 구제와 같은 윤리적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 종교성은 의미가 없다고 밝힌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혹은 예배적 삶)의 시금석은 올바른 믿음이 표출된 삶이다.³⁸⁾

2.2.1. 사도행전 26:5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하는 것을 언급하는 사도행전 26:5의 주석에서 칼빈은 바울이 따랐던 종교(θρησκεία)의 '가장 엄한 파'는 더 거룩한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르침의 순수한 진실성이 거기에 남아 있었으며 보다 많은 지식이 거기서 특출하게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³⁹⁾ 즉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은밀한 이해가 있다면서 빠진 자들이다. 칼빈은 스스로 직역주의자(literales)라고 자랑했지만 성경의 빛을 꺼버리고 수치스러운 무지에 빠진 사두개인들, 금욕생활로 만족할 뿐 가르침의 연구에 대해서는

37) Louw and Nida, *Greek-English Lexicon*, 531-32.

38) Bauer, *BDAG*, 459.

39)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I*, 270.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에센파, 그리고 성경을 은밀하고 숨겨진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뻔뻔스럽게 변화와 변혁을 일삼는 근원이 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열거한다. 이들은 참된 신앙을 보호하지 못하고 순결성에서 빛나간 자들이다. 이상의 주석에 근거해 볼 때, 칼빈은 참된 경건이란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면서 성경을 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변화되는 균형으로 본다.

2.2.2. 골로새서 2:18

칼빈은 ‘천사 숭배’(θρησκεία τῶν ἀγγέλων)를 ‘거짓 겸손’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칼빈 당시의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황주의자들이 ‘성인숭배’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바울 당시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천사에게 어떤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천사를 두는 것이다.⁴⁰⁾

2.2.3. 야고보서 1:26-27

경건한 자들은 언어의 죄 특히 중상모략을 피해야 한다. 말로 범죄 하는 자는 자신의 다른 장점들을 헛되게 만든다. 야고보서 1:27은 경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는 바는 곤궁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경건의 중요한 요점이라는 점이다.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자기 부정과 이웃에 대한 동정 및 선행으로 경건을 입증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인간이란 외형적인 형식에 너무 감명을 받는 나머지 각자의 관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40)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H.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65), 338-39.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뜻에서 덧붙여진 표현이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배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다.⁴¹⁾

2.3. εὐλάβεια의 용례

2.3.1. 히브리서 5:7

εὐλάβεια라는 명사가 BC 34세기에 나타났을 때는 ‘주의’(caution), ‘세심한 주의’(circumspection, 참고. 잠 28:14), ‘분별, 신중’(discretion)이라는 뜻이었는데(신약 성경에도 나타남), 그 후 헬라어에서는 ‘경외, 존경’(reverence), ‘두려움’(fear, 참고. 수 22:24)을 뜻하게 되었다.⁴²⁾

히브리서 5:7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devoutness) 즉 순종(히 5:8)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한다. 칼빈은 εὐλάβεια를 ‘경건’ 혹은 ‘경외함’으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두려움’ 혹은 ‘불안’으로 이해한다.⁴³⁾ 그러므로 히브리서 5:7은 예수님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성부께서 기도 응답하셨다는 의미이다. 즉 이러한 두려움이나 불안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복당하지 않았고 투쟁하여 이기셨다는 뜻이다. 두려움과 불안은 ‘불신앙’과 연결되는데, 이 불신앙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εὐλάβεια는 칼빈의 ‘경건’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1)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 III. and James and Jude*, trans. A.W. Morrison (Grand Rapids: Eerdmans, 1972), 274-75.

42) W. Mundle, "εὐλάβεια"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ume 2* (ed.) C.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1986), 90-91.

43) Calvin, *Hebrews and I and II Peter*, 64-65.

2.3.2. 히브리서 12:28

히브리서 12:28에는 ‘경건함’(εὐλαβεία)과 ‘경외함’(δῆος, fear, awe)이 같이 등장한다. εὐλαβεία는 ‘경건’(devoutness)을 가리킨다. 혹은 뒤 구절인 히브리서 12:29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두려움’(fear)도 가리킬 수 있다.⁴⁴⁾ 칼빈은 εὐλάβεια를 ‘존경’으로 이해한다.⁴⁵⁾

2.4. δικαιοσύνη와 δεισιδαιμονία의 용례

‘종교적인 행위들’과 관련되는 δεισιδαιμονία 혹은 δεισιδάμων(행 17:22; 25:19) 그리고 δικαιοσύνη(마 6:1)를 살펴보자.⁴⁶⁾

2.4.1. 마태복음 6:1

마태복음 6:1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구제와 같은 종교 행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실천할 때 전시하듯이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의’와 ‘구제’가 동의어로 사용 된다.⁴⁷⁾

2.4.2. 사도행전 17:22

사도행전 17:22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득했던 ‘종교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δεισιδαιμονεστέρους인데, ‘신들을 경외함’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44) Mundle, “εὐλάβεια” 91.

45) Calvin, *Hebrews and I and II Peter*, 203.

46) Louw and Nida, *Greek-English Lexicon*, 531-32.

47)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 I*, trans. A.W. Morrison (Grand Rapids: Eerdmans, 1972), 200.

가지지만, 부정적으로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연히 두려움으로 망설일 때 근심 중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심한 두려움’을 가리킨다.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할 정도로 확신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⁴⁸⁾

2.4.3. 사도행전 25:19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사도행전 25:19에서 베스도가 말한 ‘종교’로 번역된 헬라어는 *θεισιδαιμονίας*인데, ‘경건, 미신’을 의미한다. 베스도는 바울과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미신을 가지고 왈부왈가하고 있다고 경멸조로 말하고 있다. 로마인 베스도에게 유대인의 신앙 논쟁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경건의 법칙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함을 이방인 베스도는 알지 못했다. 여기서 칼빈은 신앙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 라고 적용한다.⁴⁹⁾ “주님께서는 실없는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치 않고, 건전한 경건과 그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과 참된 신앙과 성결에의 의무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신다.”⁵⁰⁾

3. 칼빈이 이해한 영성의 특징들

『기독교 강요』와 신약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경건 이해에 기초하여,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자.

48)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I*, 109-11.

49)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I*, 265-66.

50) Calvin, *Institutes*, 1.14.4.

3.1.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질로서의 영성

로마 카톨릭은 칼빈주의가 거울처럼 장엄하지만 냉혹하며, 영적인 풍경을 서리로 덮는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평가는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자에게는 심오한 기쁨, 용기, 영혼의 담대함은 물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등과 결합된 진지함과 절제가 있었기 때문이다(참고. 행 17:22; 딤후 2:2; 히 12:28 주석).⁵¹⁾ 이것은 이미 εὐσβεία의 용례에서 살펴본 바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위장된 성결’을 버린다(참고. 골 2:18; 딤후 3:5 주석). 대신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자연스러운 자질로 받아들인다(참고. 벧후 1:6-7 주석).⁵²⁾

3.2.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성

칼빈이 주장하는 ‘순종의 영성’의 모델로 백부장 고넬료를 살펴보자(참고. 행 10:2 주석):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들의 정직성을 보여 주는 덕에 있어서 탁월했으며,

51) 참고. Wakefield, “칼빈주의 영성,” 593. 칼빈 역시 냉정하기보다(stoic) 따뜻한 사람이었다. 참고. Selderhuis, *John Calvin: A Pilgrim's Life*, 187.

52) 칼빈 사후 약 한 세기가 지난 시점에 활동한 청교도 Charnock의 설명은 칼빈의 경건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 ‘거듭남’이란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하고도 엄청난 변화다. 그 변화를 통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원리,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법, 그리고 신적인 성품이 형성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거룩하게 행하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자라간다. 거듭난 자에게는 이전에 없던 것이 존재하고, 변화와 창조가 나타난다. 보라. Stephen Charnock, *The New Birth II: A Discourse of the Nature of Regeneratio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87. 손성은 역. 『바로 알아야 할 거듭남의 본질』(서울: 지평서원, 2007), 41.

그 결과 그의 모든 생활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정돈되어 있다. 고넬료는 먼저 십계명 첫 돌 판에 명시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경외)을 충족시켰고, 그 다음 십계명 둘째 돌 판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임무 수행도 충족시켰다. 경건과 관련하여 칼빈은 신앙(하나님 경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무시한다면 나머지 모든 덕(예.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란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⁵³⁾

칼빈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굴복하기 전에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칼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시는 것,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으로 본다. 첫째는 중생과, 둘째는 의의 전가와 관련 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것에 동참한다(참고 갈 2:20 주석).⁵⁴⁾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에 의해서 보증 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없다고 본다(참고 엡 1:14 주석).⁵⁵⁾ 성령은 이 땅에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이 이를 때 까지 영생을 보증하시는 분이다. 물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칼빈은 ‘불결함’의 반대인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의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참고 살전 4:7 주석).⁵⁶⁾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구별하

53)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285.

54) Calvin,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42-43.

55) Calvin,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132-33.

56)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Romans and I and II Thessalonians*, trans. R. Mackenzie (Grand Rapids: Eerdmans, 1960), 360.

시기 때문이다. 경건한 생활의 법칙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⁵⁷⁾

3.3. 말씀, 기도, 예배로 지속되고 강화되는 섬김의 영성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포함하는 지식이다.⁵⁸⁾ 따라서 칼빈은 경건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참고. 행 10:2; 딤후전 2:2 주석).⁵⁹⁾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한다.⁶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신앙의 능력이 속에서 드러나야 마땅하다(참고. 벧후 1:3 주석). 고넬료의 경우처럼 경건은 구제로 나타나는데, 속마음의 정(情, 즉 자비)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외적인 봉사를 통해서 표현된다. 소유욕에 사로잡혀 인색과 탐욕에 빠지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참고. 마 6:1; 약 1:26-27 주석).

칼빈은 성도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찾고자 한다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57) 칼빈과 맥을 같이 하면서 Meye는 바울 서신의 영성을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실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예’라고 확증하여 표현하는 것(Grateful ‘Yes to God’)’으로 요약한다. 성도의 ‘예’는 성부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에게 보이신 ‘예’에 근거 한다(고후 1:17-20). 기도, 말씀, 성령의 교제 안에서 살 때 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예’라는 성도의 영성은 성화로부터 나오고 뒷받침된다. 보라. R.P. Meye, “Spirituality,” in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 Gerald F. Hawthorne et al. (Leicester: IVP, 1993), 906-10.

58) “경건한 사람이 스스로 죄를 피하는 것은 형벌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로서 예배하며 찬양하기 때문이다”(Institutes, 1.2.2; 이탤릭은 필자의 것).

59)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285.

60) Calvin, *Institutes*, 3.20.14.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참고 행 26:5; 약 1:25 주석).⁶¹⁾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뛰어드는 자들은 모든 경건의 원리를 깨뜨리는 자들이다.”⁶²⁾ 하나님은 율법을 성도의 마음에 자신의 손가락과 영으로 새기신다.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고려하여 야고보가 사용한 ‘율법’은 하나님의 전체 교의를 암시한다. 하나님의 법이 성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새 언약의 복이다(참고. 렘 31:33 주석).⁶³⁾ 예수님은 우리의 입양에 대한 증거와 보증을 성령으로 주신다.⁶⁴⁾ 성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공포와 의심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3.4.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영성

16세기 교회개혁가들 중에서 칼빈 만큼 성령을 통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61) Calvin, *Matthew, Mark and Luke. Vol. III. and James and Jude*, 273.

62) Calvin, *Institutes*, 1.9.1.

63) J. Calvin, *Calvin's Commentaries: Jeremiah. Volume IV*, trans. J. Owen (Grand Rapids: Eerdmans, 1950), 131-33.

64) 칼빈은 자신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교회’(edification)를 받지 못했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죄를 범한다고 고백 한다. 참고. Calvin, *Institutes*, 4.17.39.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는 세움을 받고, 스스로 건축해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을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의 법 위에 서며, 인내함으로써 환난을 지속적으로 견디게 된다(참고. 욥기 16:13 설교). 즉 성령의 역사로 발생하는 교회는 성도에게 참신앙으로 인도하며, 그 신앙을 강화하고 기도하게 하기에 경건과 관련 된다. 보라. Calvin, *Institutes*, 3.2.34; 3.20.11. 이를 위해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사를 죄인들에게 전달하려고 말씀을 단순하면서 열정적으로 선포했다. 보라. L.F. Schulze, “Calvin on Preaching,” in 『칼빈과 교회』(ed.) 개혁주의학술원(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07), 222-39. 모든 성도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영적인 발전을 충분하게 이루지 못하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참고. Calvin, *Institutes*, 2.8.34. 그리고 A.G.P. Van der Walt, “Calvin on Preaching,” in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ed.) IRS (Potchefstroom: IRS, 1984), 326-41.

영적인 ‘신비로운 연합’(unio mystica)을 끊임없이 확고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강조한 이는 없다. ‘연합의 보증’(the bond of union)이신 성령님으로 가능한 이 신비로운 연합은 카톨릭과 루터교의 신비주의적인 ‘실체적 교제’(real communion)와 구별되는데, 성찬은 물론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도 발생한다.⁶⁵⁾ 칼빈은 성례론, 기독교론과 성령론 그리고 구원론(참고. *Institutes* 3.1.1)의 틀 속에서 이 연합을 ‘신비주의’로 보지 않고 ‘신비’로 본다(참고. 엡 5:32 주석):

“우리는 ‘신비’(mystery)라는 말을 듣게 될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억제하고 그 광대한 일을 이해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우리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여 높은 곳까지 오르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권능을 존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신성을 가엾은 우리의 본성에 접목시켜 주신 사실을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성과 이해력이 없는 야수가 되는 것이 낫다. 경건한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된 신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⁶⁶⁾

65) Calvin, *Institutes*, 3.2.24 그리고 3.11.10. 1555년 이태리인 Peter M. Vermigli와 서신으로 나눈 교제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3가지로 나눈다: (1) ‘natural/incarnational union’(비 구원론적이며 매우 일반적이고 약한 교제로서 기능적으로 sacramental sign과 같음), (2) ‘spiritual union’(택자 안으로 불어 넣어진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그 결과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결과를 유발함), (3) ‘mystical/intermediate union’(예수님과 같이 되는 원천 역할을 함). (2)와 (3)은 구속적이다. 참고. M.A. Garcia, *Life in Christ: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Eugene: Wipf & Stock, 2008), 186-88, 257-58.

66) Calvin,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210. 『존 칼빈 목회서신 강해: 명설교 14편』, 99; *Institutes*, 4.15.6.

영성(경건)을 ‘신비주의’ 입장에서 보면 혼합주의에 빠지기 쉽다.⁶⁷⁾ 동시에 영적인 교만은 이단 사설의 어머니가 되어 왔다(참고. 딘전 3:16 주석).

하지만 칼빈의 경건은 성도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혁시키기보다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대목이 더러 있다. 칼빈은 베드로전서 3:21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노아가 마치 무덤에 묻힌 것처럼 방주 속에 묻혔을 때 모든 세상은 멸망한 가운데서도 그의 몇 식구들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보존된 것과 같이 오늘날 세례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헤어지지 아니 하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이텔릭은 필자의 것). 여기서 칼빈은 세상을 구원 받아야 할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즉 world-affirming spirituality),⁶⁸⁾ 이런 입장을 그의 에베소서 2:13-15 설교와 디모데후서 2:19 설교 그리고 *Institutes* 3.9.2에서도 볼 수 있다.

4. 칼빈의 영성 이해를 현대 교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영성은 연습을 통하여 정복할 수 있는 ‘기교’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 자체이다. 영성은 능동적이고 연속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살아내기’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대 교회에서 영성을 논할 때 예수님을 빠뜨리면 신비주의 혹은 혼합주의로 흐르기 쉽다. 칼빈의 경건은

67) 황창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 63.

68) Gamble은 이것을 칼빈의 ‘세상을 부정하는 영성’(world-denying spirituality)이라 부른다. 참고. Gamble, “Calvin and Sixteenth-Century Spirituality,” 335-58.

이론에 그치지 않고, 종종 그 당시 카톨릭의 잘못을 비판했다. 우리도 경계하고 비판하고 극복해야 할 잘못된 영성의 조류는 무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혹시 신비주의, 성속의 이원론, 삶과 지식의 분리주의가 아닌가?

나오면서

위에서 적용을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간략히 글을 맺어 보자.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배와 기도로 경건을 유지하며, 세상에 탐닉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 경건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야 할 습관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비밀의 결과이다.